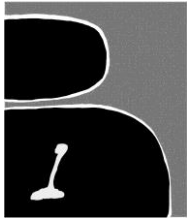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다섯째주 법회는 없습니다.

- 추석차예: 애틀랜타 9월 넷째주 일요일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Tuesday 6:30 pm: Progra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허술하게 지붕을 덮은 집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된 마음에  
탐욕은 스며든다  
지붕을 잘 덮은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As rain seeps  
through an ill-thatched hut  
Passion will seep through  
an untrained mind  
As rain cannot seep  
through a well-thatched hut  
Passion cannot seep through  
a well trained min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 하루 종일 마음 쓰는 모든 것이 수행이다

해주스님 법문

사람들은 하루 24 시간 일 년 365 일 동안 무엇인가를 합니다. 보통 승가에서는 일상 하는 행위를 두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행주좌와行住坐臥,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어묵동정語默動靜, 말하고 잠자코 있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견문각지見聞覺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를 보면 하루 종일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자체가 수행과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도인의 생활도, 신심 있는 불자의 생활도, 신심이 없는 중생의 생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 모든 행위는 전부 마음에 달렸다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법문을 귀로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법문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뭐 두고 왔는데 괜찮은가?’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으면 귀가 소리를 받아들여도 들리지 않지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 여섯 가지 경계인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육경六境을 상대하면 여섯 가지 인식 작용인 육식六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식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의근意根,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의 생각을 일으켜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인과법이 적용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업業, 까르마 karma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업에는 과보果報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짓는 업은 몇 가지로 나눠서 말해볼 수 있을까요. 천수경에서 보면 열 가지 업으로 이야기합니다. 열 가지 업은 신삼身三·구사口四·의삼意三, 즉 신업 세 가지, 구업 네 가지, 의업 세 가지입니다.

천수경 십악참취를 살펴보면 살생중죄·투도중죄·사음중죄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입니다. 그다음

망어중죄·기어중죄·양설중죄·악구 중죄는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다음 탐애중죄·진에중죄·치암중죄는 뜻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 가장 잘 살펴야 하는 업을 한 가지만 든다면 당연히 의업입니다. 왜냐면 신업과 구업도 마음이 함께했을 때 과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정신세계나 도달한 마음자리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 ◎ 마음 성품에 악업은 본래 없다

화엄경에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하는 과정의 마음자리를 42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단계예요. 그런데 만약 42 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터를 잘 닦아야 하지요. 이 42 단계 전체를 받쳐주는 터를 닦는 자리가 신심信心입니다. 신심을 토대로 깨달음을 성취해 이 몸 바로 온전히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읽어보면 신행 생활하는 보살이 이 계위에 머물면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가, 각 계위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이런 과보가 있다고 연결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십지十地의 두 번째 계위인 이구지離垢地에서는 십선업十善業을 지계바라밀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구지란 모든 번뇌의 때를 여윈 자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잘못이 없는 깨끗한 지위를 말합니다.

이구지에서는 열 가지 악업의 성품을 여윈, 열 가지 선업十善業을 실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선업의 처음에 불살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한다면 살생과 거리가 멀어야겠지요. 이 자리에 머물러있는 보살수행자는 살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품의 소유자예요. 살생을 할 수 있지만 참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품 자체가 살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일체살생을 멀리합니다. 저절로 모든 살생을 여의게 되니 살생도구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생할 도구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살생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몽둥이나 칼 따위가 살생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 중에 이런 가족이 종종 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방생을 하러 가십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직장 상사와

함께 낚시를 다녀요.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소원이야. 제발 낚시를 하지 말아다오.” 아들이

어머니의 간곡한 회유에 낚시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낚시 도구를 버리긴 아까우니 친구에게 줬어요.

이럴 경우 마음 성품이 살생과 전혀 상관없고 살생을 여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낚시대를 준 것은 살생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살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에서는 만약 살생을 했다면 인간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단명하거나 병이 많다는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생의 죄업이 크면 지옥·아귀·축생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 ◎ 참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처럼 마음 성품에 악업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악업을 짓는다면 분명한 업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은 업보의 소멸은 참회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참회도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적하셨습니다만 봉녕사에 세주묘엄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10 여 년 동안 해마다 봉녕사에 화엄특강을 하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점심 공양 후 쉬는 시간에 스님께서 옛날 윤필암에 행자로 계실 때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함께

행자생활을 했던 다른 스님과 둘이서 사중 심부름으로 산을 넘어 큰 절 대승사에 가서 콩을 한 자루 얻어 오던 길이었습시다. 힘이 들어서 나무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콩 자루를 내려놓다가 그만 콩이 쏟아졌습시다. 두 분이 열심히 주워 담았는데 풀도 있고, 흙도 있고 하니깐 몇몇 알은 다 못 찾은 채 흙으로 탁 덮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대승사에서 성철 큰스님이 운필암에 오셨습시다. 오셔서 “행자 느그 둘 와봐라. 느그 뭐 잘못했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행자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니, 성철 큰스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셨습시다. “내 여기 올라오다보니까 나무 밑에 콩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있더라. 그거 느그가 한기 아이고 뭐꼬?” 그 동안 비가 온 바람에 흙으로 얼버무렸던 콩에서 싹이 나 자랐던 것이었습시다. 그 길로 법당에 올라가 3,000 배 참회 절을 해야 했습시다. 그런데 성철 큰스님께서도 법당에 들어오셔서 어간에 앉아 염주를 굴리시면서 “느그가 거짓말을 해서 참회를 하는데 또 3,000 배 안하고 다 했다고 거짓말할까봐 내가 세고 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참회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큰스님의 자애로우심이라 하겠습시다.

◎ 인연조차도 내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의 연緣조차도 실은 모두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육도윤회,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여섯 가지 윤회의 길 중에 우리는 인간계에 속해있습시다. 육도 가운데 복이 많은 대표적인 두 세계를 든다면 인간계와 천상계입습시다. 이 인천복보人天福報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시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인간계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즐겁기도, 슬프기도, 절망하기도, 희망을 갖기도 하기 때문입습시다. 그래서 인간계는 무상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발심하는 장소입습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있습시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하지는 않지요. 자유자재하려면 깨달음을 얻고자하는 발심의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기연機緣이 굉장히 소중한 습시다. 우리는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승님의 가르침과 많은 불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한 인연조차도 실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오습시다. 내 마음이 만든 것입습시다. 법회를 열어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의 법회입습시다. 연緣도 인因인 나에게 달렸다는 말입습시다. 여기 부처님 정각의 도량에서 다함께 만남은 서로 굉장히 소중한 참 좋은 인연입습시다. 좋은 인연으로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불광에서 발해]

불공과 법회

현재 초하루와 보름 또는 일요일에 올리는 법회는 대개 불공으로 시작한다. 불공이 끝나면 삼귀의를 시작으로 법회를 시작한다. 불공과 법회가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나 현대 이전의 우리나라 옛 의례의문을 보면 불공과 법회가 나누어져 행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먼저 부처님 당시 공양법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부처님을 뵈고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 받은 이가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허락해달라고 청원한다. 별일 없으면 부처님께서도 묵묵히 계신다. 그러면 청원을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준비를 한다.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고 공양 올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다. 때가 되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옷과 발우를 챙기게 한 뒤 공양을 청한 재자의 집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으신다.

재자(齋者, 공양을 올리는 사람)는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공양을 차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바친다. 공양을 마치면 발우를 거두고 상을 치운다. 재자는 몸소 물병을 들고 손과 발우를 씻는 물을 들린다. 이어 재자는 부처님께 회사를 받아달라거나 가르침을 청한다.

부처님은 재자의 근기에 따라 재자를 위해 차근차근 설법하고 가르쳐 재자를 기쁘게 해주신다. 성현들에게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삶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데 대해 설법하여 재자의 마음이 유순해지며 온갖 장애가 없어져 교화하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와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를 설하여 재자로 하여금 법에 대한 안목을 열어준다. 법안이 열린 재자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할 것을 서원하는 삼귀의를 세 번 아뢰고, 다음은 오계를 받는다. 이렇게 됨으로써 재자는 불자로 거듭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불자로 태어나고 깨달음의 안목을 열어가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복이 되는 것이다. <열반경>으로 잘 알려진 <유행경>에는 비사리국에서 유행할 때 부처님께 처음으로 공양 올릴 기회를 놓친 예차족 사람들이 부처님께 처음으로 공양 올릴 기회를 자신들에게 양보하면 자기 나라 재산의 반을 주겠노라고 암바바리 여인에게 제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양의 복덕이 큼을 웅변한다고 하겠다. 전통의 우리나라 공양의식도 부처님 당시 불공법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육신의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신의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므로 구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청하여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공양을 올리는데, 나의 공양은 제한적이므로 진언으로 음식을 한량없이 변화시킨다. 그리고 여섯 가지 공양물과 삼보님 등 특정의 불보살님께 공양을 절하며 올린다.

공양이 끝나면 <법화경> 등 경전이나 소재길상다라니 등을 염송한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염송하여 바치는 것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니겠다는 것을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귀의 오계를 지니고 일체중생과 자성중생을 건지겠다는 사홍서원을 발원한다. 이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해 성취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는 정근을 한다. 정근이 끝나면 법회를 주관하는 법주스님은 발원제자들을 위해 부처님께 축원을 아뢰게 된다. 부처님께 올리는 축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진력과 법력이 높은 스님이 직접 부처님께 아뢰므로써 영험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공과 법회가 끝나게 된다.

부처님 당시 공양법이나 전통의 우리나라 불공의식을 보면 공양과 설법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다.

공양과 설법을 1, 2부식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은 간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전독송 이후 보결진언의 의미를 살려 공양과 설법의 일원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제사 바뀌야 젊은이들 포교된다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껏 가졌던 절대 가치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쳐 좌충우돌하고 있다. 마치 빨리 변화하는 것이 시대를 읽는 힘이라도 되듯 세상이 불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특히 눈에 띄는 고민이 있다면 다름 아닌 제사문제이다.

집에서 지내던 명절 차례가 사찰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얘기를 했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절의 명절은 참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합동 차례로 바뀐 명절을 보내고 있다. 거기에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간소화되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듯 다소 복잡한 유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제사의 형식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차례에 불자라면 불교적인 제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조 오백년의 유교문화는 제사의식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자기 정체성을 먼저 드러낸 것이 기독교다. 속사정으로 보면 유교의 흔적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기독교가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유교는 유교일 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굳이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어쩔 어정정한 불자들이 자기 정체성보다는 풍습으로 이어져오는 유교적 전통을 고스란히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생명존중이 더 소중하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날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방생해야 하는 날이며 절대로 살생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다른 생명을 죽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절에서 지내듯이 고기나 술을 쓰지 않고 정성스런 상을 차리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현실을 감안한 제안을 한다면 육법공양으로 제사상을 차리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미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불자들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지만 오랜 유교적 관습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불자이면서도 제사만큼은 유교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 절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육법공양의 제사를 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우면 유언으로라도 유교식 제사를 접고 육법공양의 불교식 제사를 지내라고 설득하고 있다.

육법공양으로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은 등(燈)의 의미로 촛불을 켜고, 향, 과일, 꽃, 빵이나 떡에 차를 한잔 준비하면 된다. 촛불이나 꽃은 예쁜 것을 쓰면 된다. 양도 많이 하기보다 정성껏 마음을 표하는 정도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경전을 독송해 드리는 일이다. 짧게는 <반야심경>에서 <아미타경>이나 <금강경> 등 형편에 맞게 가족이 함께 독송하면 된다.

이렇게 조상님의 기일을 맞아 육법공양의 제사상을 차리고 한편의 경전 독송으로 제사를 지내는 풍토가 자리 잡지 않는 한 자식에게 불교를 믿으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

과감하게 집에서 지내는 제사부터 바꾸자. 아미타불.

-불교신문에서 발췌-

### 추석맞아 불교식차례 지내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차례의식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불자들에게 유교식 차례가 아닌 불교식 차례를 지낼 것을 유도하고 있다.

불교식 차례는 우선 목적부터 다르다. 전통적인 제사는 영혼을 위로하는데 있지만 불교식 차례는 영가로 하여금 애착심을 버리고 미혹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례상을 차림에 있어서도 육류와 생선을 빼고 술 대신 차를 올리는 것이 유교식 차례와 다른 점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지난 2011년 발간한 <불교 상제례 안내(재가신도를 위한 상례와 제례 지내는 법)>에 따르면, 상차림은 간소하게 준비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은 제외하고 육법공양물인 향, 초, 꽃, 차, 과일, 밥을 올린다.

또한 기본 상차림으로 국과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춘다. 나물과 과실에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과 전, 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집안 전통에 따라 융통성 있게 차려도 무방하다.

불교식 차례는 1 단계 영가 모시기를 시작으로 제수 권하기, 불법 전하기, 축원 올리기, 편지 올리기, 영가 보내기, 제수 나누기 등 7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인 영가 모시기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을 칭명하며 부처님을 먼저 모신다. 이어 영가를 모시는 청혼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꿇어 앉은 뒤 “조상님이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영단에 왕림하시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라는 의식문을 염송하며 영가를 청하고 마지막에 합장반배 한다. 이어 모두 일어나 부처님과 영가를 향해 3 배를 올린다.

2 단계인 제수 권하기는 차와 음식을 올리는 ‘헌다’와 공양을 권하는 ‘헌식’으로 진행된다. 헌다에서는 변식진언 “나막살바 다타아다 바로기제 음 삼바라 삼바라 흠”을 3 번 염송한다.

헌다를 마치면 다함께 앉아 영가에게 공양을 권하는 헌식소(獻食疏)를 다함께 염송한다. 헌식소를 마치며 잠시 2~3 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공양 드실 시간을 드린다.

3 단계 불법 전하기는 부처님 법문을 영가에게 들려 드리는 순서로써 모두 앉아 <금강경>이나 <아미타경> 등 경전이나 ‘법성계’ 등 계송을 독송하면 된다.

4 단계 축원 올리는 영가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는 단계로써 모두 앉은 상태에서 제주가 축원문을 염송하게 된다.

5 단계 편지 올리는 가족 중 한 명이 영가에게 쓴 편지를 읽는 단계로,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조상에 대한 마음과 추억을 일깨우게 돼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차례를 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6 단계 영가 보내기에서는 모두 일어나서 3 배로 봉송인사를 올린다. 3 배 후 제주는 “조상님이시여!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아 자리에 내려오셔서 법다운 공양 받고 법문 들으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잘 가십시오. 잘 가셨다가 다른 날 도량 세워 청하올 때 본래의 서원 잊지 말고 다시 오소서.(반배) 나무아미타불(10 번).”

차례상의 음식을 거두고 제주는 밖으로 나가 나무아미타불 염불기도를 하면서 위패를 사른다.

7 단계 제수 나누기에서는 가족이 둘러 앉아 음복을 하며 영가를 기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된다.

이같은 가정식 불교 차례를 올리기 어렵다면 가까운 재적사찰의 합동차례에 동참해 조상에 대한 감사의 예를 올릴 수도 있다. 차례음식 마련에 대한 육체적, 경제적 부담감과 핵가족화, 종교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사찰의 합동차례를 찾는 불자들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스님은 “추석을 맞아 불자로서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육법공양을 올리는 불교식 차례를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찰의 합동차례에 동참해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가족간의 화목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 ☺ 붓다나라 지붕 불사

붓다나라 지붕 노화로 인해 비가 올때마다 다섯군데나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며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약 2,600 스퀘어피트 지붕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가을에 비가 오고 겨울을 나고 봄이 왔을때 내부 손상이 커질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붕 공사는 “SL Group Solutions Inc.”회사가 담당하고 늦어도 이틀이면 모두 끝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지붕 공사 하기 이전



지붕교체 공사

해외불교소식:

## 태국 불교 ‘비구니 수행자’ 바람 분다 정부와 불교계 억압 불구 ‘청정 승가’ 대안으로 떠올라

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이 일군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쌀, 카레, 과일, 과자 등의 공양을 올린다. 태국에서 스님들의 탁발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의 탁발은 신기한 모습이다. 이는 태국에서는 여성의 출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 대표 기구인 ‘태국불교협회(Samacom Buddha Sasana Muang Thai)’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구족계 수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 만여 명에 이르는 태국 스님들은 모두 남성인 비구이다. 여성은 오직 ‘가톨릭 수녀처럼’ 흰색 옷을 입은 채 사원에서 수행자가 아닌 불자로서만 생활할 따름이다. 그런데 나콘파툼(Nakhon Pathom) 주(州)를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이 송담마칼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에 주석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Asia Times’에 따르면 태국의 비구니 스님은 100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두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스님들이다. 그러나 이들 스님들의 태국에서 삶은 녹록치 않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들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불교계 지원 정책에서 비구니 스님과 주석 사원을 제외시키고 있고 비구 스님들 역시 그들을 배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들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지역 주민의 지지 속 출가를 서원하는 태국의 여성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층도 노동자,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언론인, 의사 등 다양하다. ‘여성 출가’에 대한 관심이 여성 불자들 사이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국 여성들도 구족계를 수지한 수행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은 “우리는 이제야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태국에서 비구니 스님의 온전한 수행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의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일을 지속해 아쉽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때다.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이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ia Times’에 따르면 비구 스님 중심 태국 불교계가 최근 돈과 성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청정 승단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의 바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앙마이외의 불교 활동가 본추아이 도자이(Boonchuay Doojai) 씨는 “비구니 스님들은 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초기 교단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보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er)를 운영하는 텡비수 티카위(Tepvisu thikawee) 씨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신심이 커지는 것 같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이 역경을 이기고 나면 태국에도 비구니 계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언론들 역시 ‘보편적인 가치로 성직자를 보아야 하며 봉건적 체제에 가둘 수는 없다’(Bangkok Post), ‘대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에 애써야 한다’(Hindustan Times) 등 태국 불교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sia Times’는 “태국의 최고승가위원회가 ‘스리랑카 수계자’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들 수계자에 대한 기부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비구니 스님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줄리안 쇼버(Juliane Schober) 아리조나주립대 교수 말을 인용하며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비구니 수행자의 모습을 스스로 조각하고 있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비구니 스님의 선구자적 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 전 교수 불자로 활동하며 태국 불교계의 여성 불자로서는 최초로 구족계를 수지한 바 있다. 이후 송담마칼야니 사원에 주석하며 공무원, 기업인 등 태국 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종교 캠프를 봉행하고 있다.

-현대불교에서 발췌-

사찰요리:

### ☺ 추석특집 특별식

일년에 가장 풍성한 먹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한가위. 드높은 가을하늘에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추석이 눈앞이다. 송편 만들고 전 부치고 햇밤 쪼먹고... 집집마다 약속이라도 한듯 비슷한 명절음식을 상에 올리지만, 불자라면 조금 특별한 추석상차림에 도전해보자. 이른바 ‘추석 사찰특별식’이다. 빛깔과 모양은 물론 맛과 영양까지 담보하는 상상 이상의 특별식을, 사찰음식의 대가로 손꼽히는 일운스님, 대안스님, 흥승스님 등이 내놓은 비밀레시피로 만난다.

명절상에 올라오면 우선 시각을 사로잡는 우월한 비주얼, 구절판을 빼놓을 수 없다. 일운스님은 “구절판의 또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바로 화합”이라며 “8 방에 나뉜 음식재료를 밀전병에 싸서 먹는데, 이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의 화합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과 이웃들이 구절판을 나누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풍경이

명절기분을 더해줄 것이다. 야채재료는 당근과 깻잎, 무순, 느타리버섯, 건표고버섯, 목이버섯, 오이 등이 필요하다. 제각각 올리브유에 볶는데, 표고버섯은 불려 채썬 후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해야 제맛이다. 밀전병 역시 올리브유로 부쳐서 준비한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간식을 맛깔스런 사찰음식으로 가공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일운스님은 가을추석에 먹으면 좋은 어린이용 음식 중 김치스파게티를 꼽았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데쳐서 껍질을 벗긴 토마토와 월계수 잎을 넣어 잘 저어준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 기호에 맞게 꿀, 소금, 후추, 고추장을 넣어가며 간을 더한다. 잘게 깎쪽썰기 한 파프리카, 양배추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썬 것을 기름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서 올리브유에 잘 볶는다. 월계수향이 적당히 배었으면 익은 건지고, 볶아두었던 야채들과 다진 김치, 옥수수, 완두콩, 감자 간 것을 넣어 중불에 계속 저어가며 끓이면 김치스파게티 소스가 완성된다. 잘 삶은 스파게티면을담아 모차렐라치즈가루를 뿌려먹으면, 영양만점의 가정식 스파게티가 탄생한다.

잡채도 이왕이면 뒷맛이 깔끔한 사찰식 우영잡채를 홍승스님이 추천했다. 잘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넣어 우영을 볶다가 맛간장과 물엿을 넣어 조린다. 국물이 끓으면 불린 당면을 넣고 국물이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볶는다. 당면이 충분히 볶아졌으면 불을 끄고 조리놓은 우영과 볶아놓은 고추를 넣어 잡채양념으로 버무린다.

추석명절에 빠지면 섭섭한 토란탕은 선선한 가을날씨에 제격이다. 대안스님이 제시한 삼색경단으로 빚어 끓인 이색토란탕이다. 대안스님에 따르면 토란은 추석절기음식으로 여름내 찬 음식으로 냉기가 가득 찬 장을 따듯하게 덤혀준다. 추석에 토란을 먹어야 기침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부터 탕으로 끓여먹었다. 우선 토란과 두부를 찌고 삶아서 으깨고 섞어 단호박가루 백년초가루 등을 넣어 삼색경단을 만든다. 당근은 채썰어 넣고, 따듯한 물에 목이버섯을 담가 불리고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고 저미어서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밀간을 해서 팬에 볶는다. 탕을 끓일 때는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넣고 경단과 당근을 넣고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경단이 익어서 떠오를 때 불을 끈다. 토란탕은 추석별미 보양식으로도 충분하다.

일운스님이 ‘개발’한 배추속대말이찜은 언뜻보면 만두같다. 당근과 고추 애호박을 잘게 썰고 두부를 으개어 물기를 제거한 뒤 삶아 건져둔 당면까지 잘게 다진다. 재료들을 모두 섞어 소금과 집간장으로 간을 한 뒤 살짝 썬 배춧잎에 소를 넣어 잘 말아준다. 다시 한번 찌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나오면 그럴듯한 배추속대말이찜이 나온다. 명절에 술잔간 할 때 안주로도 제격이다. 고기맛이 그렇다면 버섯편육도 해볼만한 명절음식. 마른 버섯인 목이버섯, 석이버섯, 능이버섯을 불려서 물기를 빼고 볶고 팽이버섯은 가볍게 씻어 마른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밤도 편썰기해서 팬에 기름없이 볶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한천가루를 풀어 끓이다가 우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인 뒤 모든 버섯과 볶은 밤을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네모난 틀에 부어 식힌 뒤 냉장고에서 2 시간 정도 굳히면 젤리처럼 쫄득해진다. 고추장과 식초, 조청, 통깨를 섞어 초고추장을 만들어 버섯편육에 곁들여 먹으면 특별한 명절음식이 된다.

남들 다 하는 추석음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자답게 스님들이 추천하는 추석 특별식으로 가족과 이웃에 공양을 올리는 한가위가 되면 어떨까.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영화의 바다'불교적' 사유도 깊어지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 숨은 영화들을 바다 속 진주처럼 찾아내 소개해 온 영화의 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0 살을 맞이한다. 영화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옥같은 불교 소재 영화와 불자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영혼의 순례길’은 중국 베이징 출신의 장양 감독이 1년에 걸쳐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삼보일배하는 티베트 불자들의 순례길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다. 티베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니이마가 티베트 사람들이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하는 칸린포체(카일라스)산과 라싸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 웅장한 티베트의 자연과 함께 잔잔하게 영상에 담긴다. 장양 감독은 부산을 찾아 관객과의 만남도 갖는다.

스리랑카 영화 ‘표범은 물지 않는다’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스리랑카 영화의 신성’으로 불리는 프라사나 자야코디 감독의 작품이다.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는 것과 종교적 믿음의 철학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해준다.

일본 영화 ‘승려와 분홍신’은 미국인과 일본인 게이샤 사이에서 태어나 출가의 길을 선택한 93 세 헨리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파란만장 했던 스님의 삶이 풍부한 재연 영상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대서사시처럼 전개된다.

한국영화 ‘눈꺼풀’도 불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영화는 미륵도라는 섬에서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면서 참선 수행을 하는 노년의 거사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영화를 만든 오멸 감독은 제주도 독립영화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캐나다의 코너 개스톤 감독이 만든 ‘환생’은 서양 영화로는 드물게 환생을 주제로 다룬다. 한 교사는 네 살 박이 아픈 딸이 우주 탐험을 했던 아폴로 1 호 우주비행사의 환생이라고 믿는다. 그의 아내와 이웃 그리고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스틸러적 요소를 갖고 전개된다.

부산국제영화제 단골 감독이며 불교적 철학과 사유를 영화에 담아 온 대만 차이밍량 감독, 태국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도 새 영화를 들고 부산을 찾아온다.

차이밍량 감독의 신작 '오후'는 감독 자신이 스님보다 더 스님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연기했던 배우 이강생씨와 영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옮겼다. 영화 '영클 분미'로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은 세계 각지에서 촬영한 영화 '찬란함의 무덤'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항상 영화를 통해 티베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페마 체덴 감독의 신작 '타를로'도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어엿한 성인이 된 제 20 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 월 1 일~10 일 부산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해운대·남포동 일대에서 열린다. 9 월 24 일 오전 10 시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biff.kr)와 부산은행에서 예매 가능하다. 1666-9177

-법보신문에서 발췌-

### 법회소식 NEWS

불기 2559 년 (2015 년) 9 월 27 일 (음력 8 월 15 일) 넷째주 일요일은 한민족 전통 추석입니다. 하루전인 9 월 26 일 토요일에는 사찰에서 송편을 만들고 일요일인 27 일에는 합동 추석차례를 지냅니다. 인연있는 모든 불자님들도 함께 사찰에서 추석명절을 모셨으면 합니다.

\*\* 추석차례는 불교식 육법공양을 기본 제사상 차림으로 모십니다.

- 10 월 둘째주 일요일인 10 월 11 일은 붓다나라 템플이 애틀랜타에 개원한지 1 주년이 되는 기쁜날 입니다. 사찰이 창건되고 오늘까지 오는동안 붓다나라 신도님들을 물론이고, 멀리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무사히 1 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복락이 함께 하시길 축원올립니다.
- 10 월 둘째주 일요일 붓다나라 개원 1 주년을 축하하는 마음과, 본인의 생일을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담아 신묘생 정혜련 선생님이 대중공양을 보시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신도님들은 둘째주 일요일날 공양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풍이 아름답고 하늘도 높고 푸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애틀랜타 붓다나라 토요일 참선법회 불자님들은 10 월 24 일 토요일에 근교 산을 오르는 산행과 각자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공양을 함께합니다.  
 ◎ 10 월 24 일 토요일 아침 사찰에 모여서 함께 출발  
 ◎ 등산하기에 편한 신발과 복장  
 ◎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
- 제 1 회 붓다나라 장학생 윤혜림 (Hea Rim Yoon) 학생이 중앙일보에서 수여하는 제 28 회 김보 장학생에도 선발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불사를 동참하면 세세생생 무량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지붕불사와 2016 년도 달력불사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입니다.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붓다나라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네팔 현지로 전해집니다. 많은 동참기 바랍니다. : \$960.00 (현재 Sep. 20 까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314)993-0185; 애틀랜타 붓다나라 (770)945-5345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 불사동참 ◇
- ◇ 2006 Infiniti M35 승용차 : 고 Mr. Richard Stanley
- ◇ 지붕불사: 여래사 설조 큰스님, 김동희 (Tong Stanley)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